

오래 지속되는 신개념 필러 인기

의료기기 - 필러부문 대상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대표 함성권·사진)은 2014년 필러 '티슈필'을 출시했다. 티슈필은 지방이식술과 필러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시술법인 '큐오필(Q.O.Fill)'에 적합한 필러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큐오필 시술의 확대를 이끌었다.



JW중외제약은 미용성형 영역의 새로운 시술분야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2016 메디컬코리아대상'의 의료기기-필러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형수술은 회복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지만 티슈필은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티슈필은 중 불륨을 채워주는 필러 시술이 빠르게 대중화되는 추세다.

예전에는 콧대, 이마 등 부분적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즘에는 얼굴의 조화를 위해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려주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얼굴 전체를 시술하는 폴페이스 필러 시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런 흐름에서다.

전체적인 얼굴 조화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큐오필 시술이 있다. 큐오필 시술은 히알루론산(HA) 필러와 자가혈장장인자(PRP)를 함께 시술하는 신개념 필러 시술법이다. 시술자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성장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볼륨 효과는 물론 피부톤 개선, 피부 재생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체내 유지기간이 6~9개월 내외에



필러 '티슈필'

불과하지만 큐오필 시술은 성장인자를 혼합 시술하기 때문에 이보다 오랫동안 볼륨을 유지해준다.

JW중외제약의 티슈필은 큐오필 시술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HA필러는 대개 성인의 안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능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 티슈필은 조직 수복용 재료와 생체 재료를 함께 사용해 재료가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고, 손실을 줄여주며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티슈필은 이 같은 보조제 기능을 인정받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티슈필은 체내에 존재하는 천연성분인 HA성분으로 이뤄져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1mL와 5mL의 대용량으로 구성돼 부위별 시술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 윤곽 개선 시술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기존 필러의 짧은 지속기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의사나 환자들에게 티슈필을 활용한 복합시술법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필러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年매출 13% '개량신약 R&D'에 투자

개량신약부문 대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 제약(대표 강덕영·사진)은 1987년 설립돼 200여 개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업체다. 지난해 매출 162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14% 수준을 유지하며 고성장을 중이다.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2%로 40여개국에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개량신약 '실로스탄CR정'과 소염진통제인 '클란자CR정', 항혈전제 '클라빅신듀오', 기관지염 치료제 '칼로민정', 위장관운동촉진제 '가스티인CR정' 등이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실로스탄CR정은 하루 1회 1정도 복용순응도를 향상시킨 개량신약이다. 2013년 발매돼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출시된 가스티인CR정은 세계 최초로 하루 한 정만 먹으면 되는 위장관운동촉진제 개량신약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제약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브스의 '아시아-태평양 200대 유망기업'에 선정됐다. 2012년에는 정부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에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 2014년에는 정부의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300'에, 2015년에는 연구개발(R&D) 비율 및 해외진출 역량요건을 충족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시 전통면과 서면에 일관제 및 항암제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4년 중앙연구



가스티인CR정

소를 설립해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제, 합성, 중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R&D 인원은 90여명으로 석·박사 이상의 전문인력 비중이 높다. 해마다 매출의 13%가량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클란자CR정을 출시했고 클라빅신듀오정, 실로스탄CR정, 칼로민정, 가스티인CR정 등의 다양한 개량신약을 잇따라 발매했다. 2013년에는 중국 제약사인 장시지민커싱그룹

(JJK)과 클란자CR 기술 수출계약을 맺었다. 올해는 베이징머원제약과 실로스탄CR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제약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의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사, 약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1회 이상의 학회 및 광고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을 열고 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 등에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미 출시한 개량신약의 매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매년 개량신약 신제품을 발매해 수익성이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9만명 진료 실적 ... 中 25곳에 성장센터

성장클리닉부문 대상 서정한의원

서정한의원은 성조숙증과 키 성장 분야에 특화한 한의원으로 1994년 문을 열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원장(사진)은 '키 박사'로 불릴 정도로 키 성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성장 치료를 받기 위해 브라질 독일 영국 두바이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환자들이 서정한의원을 찾아오고 있다.



서정한의원은 9만명 이상의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이징 상하이 옌지 창춘 등 한의학의 본고장인 중국 25개 도시에 '박박사청소년성장지도센터'를 개설했다. 서정한의원은 산동중의대부속병원에 '한중박박사청소년성장연구소'를 개설해 중국 학생들의 2차 성장 발생 시기, 성장률과 중국 대륙 간 성장 치료 차이점을 연구하고 있다. 성장량과 성장단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결과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효능을 인정받았다.

성장기의 어린 돼지 216마리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성장단을 복용한 실험군은 성장단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골밀도가 42.8% 증가했다. 척추 길이는 6.8%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00년 아시아-호주 동물과학회지(AJAS) 논문에 게재됐다.



생은 8.2cm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국제학술지 식물요법연구에 발표됐다.

성장단과 성장탕은 자연적으로 성장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키를 크게 한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이전, 남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서정한의원은 설명했다.

서정한의원은 성조숙증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 초경이나 몽정 등 2차 성징이 때때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서정한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물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성조숙증 환자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도와주고 있다. 의외인 인진 산약 등 20여종의 한약재를 배합해 만든 성장탕은 성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성장기간을 늘려준다.

임상 결과 1년 이상 조경이 늦춰지면서 성장기간이 늘어났다. 최종적으로 키가 6~8cm가량 더 커졌다. 조기 성숙으로 진단받은 여자 아이들에게 조경 지원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과 성장장애 치료 병행했다니 여성호르몬 분비가 지연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조경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성장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조경을 늦춰주면서 성장을 촉진시켜주면 키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산재근로자 돕는 통합재활시스템 구축

재활센터부문 대상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사진)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1977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정선, 경기 등 전국에 10개의 직업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등 6개 병원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주간재활프로그램, 일상생활 동작프로그램 등 선진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들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 평가 회의를 통해 재활치료계획수립, 신체기능평가, 작업능력평가, 심리상태평가를 한다. 이를 근거로 최적의 재활치료법을 산재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맞춤형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의료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작업능력평가시스템, 등속성능평가장비, 중력조절보행시스템, 무중력감압치료기, 척추심부근 강화훈련기, 척추안정화 훈련시스템(3D뉴턴) 등 최첨단 재활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병원과 대구병원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중재활치료 시설을 설치해 고품격 수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들은 로봇재활치료 시스템, 중력조절보행시스템 등 최첨단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수중치료 모습.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선진화된 재활 치료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대구병원 내에 연 재활의학연구센터에서는 산재 재활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활프로그램 보급,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및 선진화 연구 등에 나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서울대병원과 연구협력을 맺고 근로격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치료기법을 도입했다. 근로격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은 수중치료를 포함해 매일 1시간 이상 강도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산재특화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대병원과 공동 진료·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재활치료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위한 요양·보상부터 직업·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인 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 재활병원과 차별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재활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적 처치인 의료재활, 심리·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둔 사회심리재활, 직업복귀 촉진·지원서비스인 직업재활을 포함한 시스템이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